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2호 【루계 제25455호】 주체105(2016)년 11월 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200일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지금 우리앞에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더욱 세차게 분출시켜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여야 할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힘을 온 누리에 떨친 만리마진군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200일전투목표를 반드시 수행함으로써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는것이 당과 혁명의 요구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해나가는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집행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초소에서 자기의 책임과 직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정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것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나는 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관건적인 해로 되게 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높은 존엄과 령도적권위를 힘있게 과시하고 천하제일강국의 령마루에로 질풍노도치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올해의 장엄한 투쟁은 200일전투의 빛나는 결속과 더불어 더욱 긍지높이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지게 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활동원칙이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에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직지도하는 정치적참모부이다. 전당의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대중을 200일전투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당정책옹위전의 불길,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 세상을 들었다놓는 승전포성들이 련속적으로 울리게 된다.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160일이 되였다. 이 기간 당 제7차대회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전당적인 학습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비상히 높아지고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구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변혁들이 일어났으며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한 전형단위들이 배출되였다. 특히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전환함에 대한 당의 호소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단숨에 북부전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전변시키고있는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류례없이 거창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 벌어지는 나날 각지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인민경제회복 기한전에 완수하고 최고생산실적을 올리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명도자와 사상도 슴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당조직들의 기관차적, 송풍기적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200일전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이룩한 성과도 크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다 더 중요하며 정세도 의연히 긴장하고 첨예하다. 우리 당이 세계앞에 선포한 200일전투의 승리는 오늘의 총돌격전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금이야말로 각급 당조직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본때있게 벌려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이 당의 의도와 대중의 앙양된 열의, 헌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격성과를 계속 확대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면 20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어떤 애로와 난관이 겹쌓인다 해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총정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200일전투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전형단위들은 례외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단위들이다. 이것은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이 곧 200일전투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열쇠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오늘의 200일전투가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으로 지향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립각하여 일별, 주별, 월별전투계획수행을 총화하며 수령님들의 유훈교시를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200일전투가 진행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아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앞에 결의다진 200일전투목표와 과업들이 미진된것이 없이 무조건 수행되도록 하는데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발동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에서 관심하고 중시하는 문제들을 끝까지 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무엇을 하나 해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200일전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사상공세를 벌려나가야 한다.

최후의 승리는 신념의 강자들만이 이룩할수 있다. 뜻밖의 대재앙이 들이닥친 때로부터 두달 남짓한 기간에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서 이룩된 천지개벽의 희한한 헌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200일전투가 마지막단계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니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조성된 정세와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신념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 들끓는 생산현장과 전투장들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당의 결심은 빛나는 실천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과 지력자강으로 만난을 맞받아뚫고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결사관철의 정신이 차넘치도록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계속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 패배주의, 보신주의, 무책임성, 남에 대한 의존심, 수입병, 안일해이와 나약성과 같은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에 벌어지는 200일전투의 결속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을 어떻게 떠밀어주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조직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하는데서 200일전투기간에 점령해야 할 목표와 과업들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행되도록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옳게 해나가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부문과 건재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발휘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과 증산돌격투쟁을 계속 확대시켜 200일전투의 승리가 더 큰 승리로 이어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직접 이바지하는 단위들의 당조직들에서도 남은 200일전투기간에 계획완수자대렬, 혁신자대렬이 계속 늘어나도록 생산자대중을 적극 떠밀어주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의 당조직들에서 올해농사를 잘 결속짓도록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야 한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생산실태를 환히 꿰들고 경제지도일군들과 함께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색도 갈이하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이 최대로 발양되도록 사상통원, 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이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는 우리 당의 존재방식, 혁명적당풍이다. 200일전투의 성과여부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당조직들은 200일전투목표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 과업이 방대하고 난관이 겹쌓일수록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며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들의 북돋움진에 돌려야 한다. 오직 당만을 믿고 200일전투에서 고결한 충정심과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는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풀어주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추호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그들을 위해 멸사복무하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초급당위원회들과 당세포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층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직접 관철하는 집행단위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이다.

초급당위원회들과 당세포들에서는 당의 사상과 방침들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고 그 관철을 위한 옳바른 집행대책을 세우며 집행정형을 즉시에 보고하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잘 짜고들어 그들이 200일전투의 실천투쟁속에서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고 혁명화를 다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북부피해복구전투와 인민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증산돌격전에서 선봉투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기층당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더욱 증대시켜 200일전투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이 맹렬히 벌어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의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를 전형단위로 추켜세워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앞장서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활발히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근로단체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와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사업과 직업동맹사업을 중시하고 적극 밀어주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원들과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녀맹조직과 농근맹조직들의 사업을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모든 동맹원들이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고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20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전투장마다에서 계속 혁신

1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공사 완공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에서

조국의 북변땅에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화위복이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에서 또 하나의 장엄한 승전포성이 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탄광에서는 지난 9월말까지 1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공사를 완전히 결속한데 이어 10월말까지 개건된 벨트콘베아수송선운영의 현대화를 최상의 높이에서 우리 식으로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탄광현대화사업에서 또 하나의 모범이 창조되고 남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석탄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이번에 남양탄광에서는 석탄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콤퓨터에 의한 갱내 중장거리벨트콘베아조종을 실현함으로써 수천m의 구간에 있는 여러개의 원동소들을 지령실에서 지령원 혼자서 조종할뿐아니라 콘베아의 가동상태와 석탄운반량도 실시간으로 감시, 조종할수 있게 하였다.

나라의 석탄공업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말 남양탄광의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과 2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신설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당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성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짧은 기간에 설계를 완성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비력치리와 영구화블로크보장사업, 자재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개건공사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석탄공업성과 중앙검찰소를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로 조직된 현장지휘부와 탄광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침임식으로 드세차게 벌리는 한편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조직진행하였다.

공사의 중심고리와 선후차, 단계별, 공정별전투과업이 과학적으로 라산된 일군들의 째인 전투조직과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실천력은 만리마기수로 영예떨치려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발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탄광현대화사업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를 창조해간다는 긍지와 자부심, 우리 당이 바란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것이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기풍, 투쟁본때이라는 아심만만한 담력과 배짱, 투지를 가지고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공사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벨트갱과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탄광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지구장비를 현실성있게 창안하여 부분품제작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설비조립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여 맡겨진 공사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탄광의 1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공사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헌실로 꽃피우는 길에서 뜻과 마음을 같이하고 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더욱 힘있게 추진되였다.

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회 석탄채굴공학연구소 과학자들이 탄광의 벨트콘베아수송선현대화사업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이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만리마시대를 추동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이라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피타는 탐구와 노력으로 콤퓨터조종체계와 실시간감시 및 계량체계, 벨트콘베아동력장치 유연기동체계를 완성함으로써 갱내 중장거리벨트콘베아현대화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 우리 당에서 준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온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을 비롯한 벨트콘베아부분품생산을 맡은 여러 단위의 로동계급도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면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공사가 순간의 지체도 없이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석탄공업성과 련관부문의 일군들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설비보장을 따라세우면서 많은 지원물자를 싣고 현장에 자주 찾아와 탄부들과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특히 한현철동무를 비롯한 중앙검찰소 일군들은 매 건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자재와 물자들을 해결해주는것과 동시에 공사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자진하여 맡아 책임지고 앞장에서 풀어나감으로써 개건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지금 남양탄광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개건공사와 현대화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가슴뿌듯이 절감하며 2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신설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김 국 철

누에치기소독약의 국산화 실현

자 강 도 에 서

잠업도, 비단도로 전변된 자강도에서 누에치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소독약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잠업의 주체화를 실현하였다.

도에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자재, 우리의 설비로 생산한 여러가지 누에치기소독약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자랑찬 산물이다. 도에서는 올해에 새로 연구개발한 누에치기소독약으로 봄, 가을누에치기를 진행하여 전례없는 누에고치생산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근밑천인 누에고치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근본방도를 잠업의 주체화에서 찾고 누에치기소독약을 도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강계의학대학의 실력있는 연구사들을 대담하게 믿고 우리 식의 소독약생산방법연구과제를 맡겨주었다.

박사 부교수인 학부장 조광혁동무와 강좌장 을철우동무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연구사들이 장강잠기구공장에 실험실을 꾸리고 도에 흔한 원료자재에 의거하는 새로운 소독약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대학의 연구사들은 장강잠기구공장에 있는 소금물전기분해법에 의한 소독약생산공정을 깊이 파악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소독약생산방법을 3년동안에 연구완성할 목표를 내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연구사들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시약과 시험기구, 분석설비들과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이들이 새로운 소독약생산방법연구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

연구사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금속착화물에 의한 3가지 용도의 소독약생산방법을 수개월동안에 연구완성한데 이어 실험실가까이에 누에칸을 꾸리고 누에치기를 진행하면서 수입소독약과 대비정밀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누에몸소독, 자리소독, 누에치기도구소독, 누에칸공기소독에 리용할수 있는 용도와 성질, 효능이 서로 다른 1호, 2호소독약 등이 수입소독약에 비해 효능이 높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

연구사들은 장강잠기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배전반, 전해조, 교반기, 탈수기 등 여러종에 달하는 10여개의 설비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소독약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였다.

이들은 소독약생산설비들의 기술관리규칙도 새로 만들고 여러가지 소독약들의 특성에 맞는 사용지도서를 만들어 누에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 내려보내주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효능이 좋은 누에첨가제도 새로 연구개발하여 누에치기에 도입일반화하였다. 새로 연구개발한 누에첨가제는 잠업부문의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으며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도의 잠업부문의 일군들은 도자체의 힘으로 생산한 백수십t의 누에치기소독약을 도안의 잠업농장, 잠업전문협동농장, 고치농장, 협동농장들의 잠업작업반, 잠업분조들에 공급하였다.

도적인 누에고치생산은 최고생산년도인 지난해실적을 훨씬 릉가하였다.

도의 잠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봄, 가을누에고치생산이 지난해에 비해 장성한 비결이 도자체의 힘으로 생산한 누에치기소독약을 리용한데 있다고 누구나 말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잠업부문의 일군들과 장강잠기구공장의 로동자들은 총정의 200일전투기간에 년간 수백t능력의 소독약, 첨가제를 생산할수 있는 생산공정의 개건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인민사랑의 건축물들이 훌륭하게 일떠선다

남 포 시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구상에 따라 남포시에 인민사랑의 건축물들이 훌륭하게 일떠서고있다.

태성지구에 건설되는 현대적인 농장마을과 초등학원, 중등학원, 전쟁로병보양소, 어린이교통공원 건설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학생가방공장건설장에서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두달 남짓한 기간에 골조 및 내외부미장공사가 전부 끝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태권도훈련관건설장과 체육관개건공사장을 비롯하여 시안의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건설장들에서 전례없는 위훈이 창조됨으로써 남포시의 면모가 나날이 일신되여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수십개에 달하는 방대한 건설대상공사를 200일전투기간에 기본적으로 결속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건설대상별특성을 고려하여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부들을 조직하였으며 로력과 운수수단, 자재보장대책을 따라세우고있다. 시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시안의 건설현장들에 자주 나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주면서 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맡은 건설대상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밑에 총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본보기농장마을건설을 맡은 지휘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살림집 및 공공건물골조공사를 단 몇달사이에 해제낀 기세로 살림집내부공사에 힘을 넣으면서 공공건물마감공사, 도로 및 주변정리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초등학원, 중등학원공사장에서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신 건설속도가 창조되고있다. 신재룡, 김해원, 박성혁동무를 비롯한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는 심정으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여러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건설자들, 온천군과 대안구역의 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외부공사를 결속한데 이어 내부공사와 지대정리, 운동장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전쟁로병들을 위한 보양소건설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장일남, 강인세동무를 비롯한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시청년돌격대원들과 와우도구역의 녀맹원들, 시인민위원회 각 부서일군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학생가방공장건설장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바람이 일고있다. 김춘일, 김정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면서 앞선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단 몇달사이에 기본건물과 보조건물골조공사를 끝내고 계속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어린이교통공원과 태권도훈련관건설장, 체육관개건공사장에서도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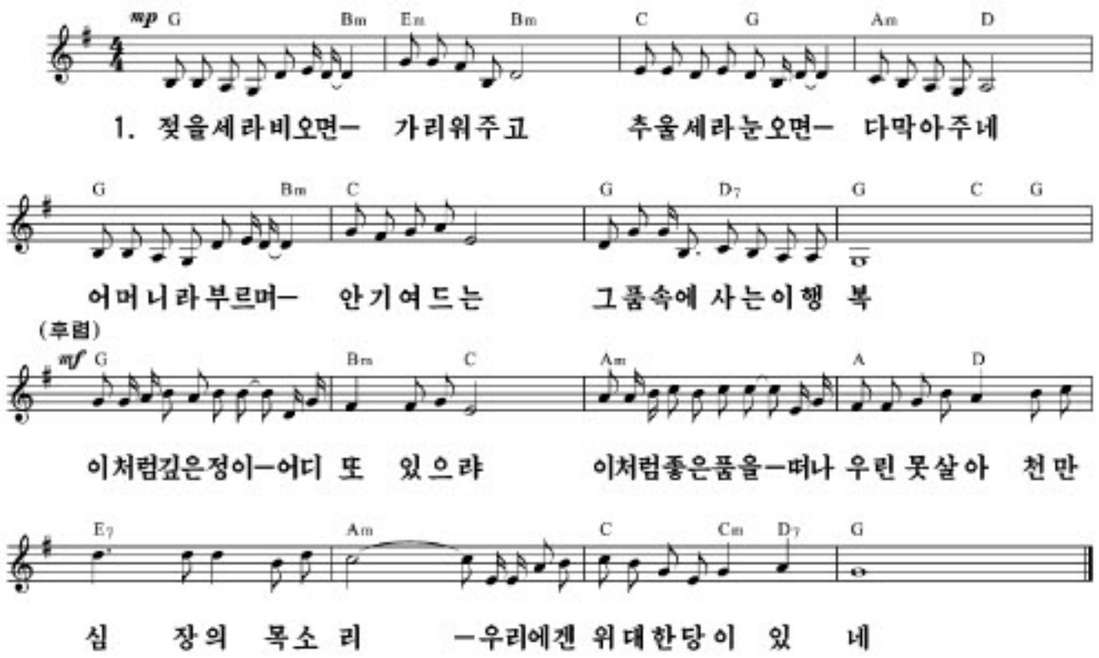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기개와 애국열의가 충폭발되는 속에 200일전투계획에 반영된 여러 대상공사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으며 항구도시는 훌륭히 변모되고있다.

특파기자 주 창 선

200일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한 긍지안고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작사 차호근
작곡 황진영



2. 사랑으로 따뜻한 정든 시선은
밤깊도록 요람에 머물러있고
기적에로 이끄는 힘찬 손길은
밝은 길만 펼치여주네
(후렴)

3. 저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있듯
이 땅우엔 은혜론 당이 있어라
열백번을 태여나 다시 산대도
그 품에만 우리 살리라
(후렴)

우리 당의 혁명관

혁명이 력사의 기관차라면 당은 혁명의 기관차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전위대, 전투적참모부로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을 떠난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고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들의 출발점, 절대적기준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며 당활동의 최고원칙도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에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가 비껴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오늘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로 전환되고 군민대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에 의해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되고있는것도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다. 인민을 위할수록,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지고 혁명이 전진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관이다.

인민을 위할수록 혁명대오가 튼튼해진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관점과 립장이다.

혁명은 광범한 군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혁명투쟁에서 단결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으며 단결된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의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체이다. 단결이 당의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뿌리,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은 인민이다. 우리 당이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은 근본비결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해온데 있다.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무한한 신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어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다.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오늘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북부피해복구전투장에서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북부전역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들의 보금자리들을 보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는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천만군민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으며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굳게 잇고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려는 신념의 행렬들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사랑과 정으로 뭉쳐진 이런 강위력한 혁명대오가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혁명이 전진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혁명의 목적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데 있다. 혁명의 전진은 곧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며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커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모습,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우리 당의 진모습이 있다. 인민들은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슴뜨겁게 받아안으면서 고결한 충정을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다. 이것은 날로 꽃펴나는 인민의 행복이야말로 우리 혁명을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혁명하는 멋, 혁명하는 긍지와 보람은 인민들이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귀중한 재부가 하나하나 늘어나는데 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일편단심 당만을 믿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지이다.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고 하시며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고서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먼저 물어주시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풍모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의 문명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커갈수록 삶의 보금자리, 행복의 려진을 더 잘 가꾸어가려는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이 더욱 불타오르게 되며 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게 된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위대한 당의 령도는 우리 인민에게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이 땅우에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다는 우리 당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가장 투철한 혁명관을 지니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갈것이다.

조 학 철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꽃펴나는 조국의 미래

오늘도 천만군민의 마음의 금선을 울리며 이 땅우에 절절히 울려퍼지는 노래가 있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당과 국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행복에 넘쳐, 기쁨에 넘쳐 부르는 노래이다.

송도원의 하늘가에 어제도 오늘도 랑랑히 울려퍼지는 우리 아이들의 노래, 한없이 자애로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유명한 명승지에 훌륭히 꾸려진 세상에 둘도 없는 궁전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누리는 북변땅 아이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은은 실로 크다.

해방후 처음 보는 대자연의 광만으로 집과 학교를 잃고 혈육들마저 잃었던 아이들이었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지난 10월 20일 함경북도의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1000여명의 소년단원들을 태운 직통렬차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도착한데 이어 11월에는 피해지역의 600여명의 학생소년들이 또다시 송도원에서 행복한 야영생활을 하고있는것이다.

진정 동서고금에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은적 있었던가.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북부피해지역의 학생소년들을 위해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푸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천하절승의 송도원, 유명한 명승지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북부피해지역 학생소년들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

그것은 노래이기 전에 이 땅의 아이들의 티 한점 묻지 않은 심장의 울림이다.

나어린 학생소년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는 그 뜨거운 열기를 안아볼수록 태양의 빛발로 조국의 미래를 만발하게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폭들이 련면히 어려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하루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내시며 조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신 사연이 어제런듯 선명히 어려온다.

주체103(2014)년 5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과 야영소준공식에 친히 참석하시고 온 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보내시였다.

한평생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혁명의 미래,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시고 더욱 훌륭히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도 참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아외운동장에서 진행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도,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의 절정을 이룬 축포발사도 그들과 함께 보아주시며 열렬한 후대사랑의 화폭을 펼쳐놓으시였다.

시급히 카드치심을 주시고 걸음을 주셔야 할 일들이 많건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 온 하루를 다 바치시였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사람들은 그이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한평생 후대사랑의 력사를 그토록 감동깊이 펼치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모습그대로였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련면히 이어가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깊이 추억하시며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결국 어버이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받은것이라고, 우리가 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여나가자면 후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혁명의 교대자,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몇해전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한평생을 그토록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수놓으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위인상이 숭엄히 빛발쳐와 모두의 가슴가슴은 뜨거워졌다.

위대한 한평생을 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빛내이신 우리 수령님!

어버이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마안산을 비롯한 전구들에 새기신 가슴뜨거운 후대사랑의 화폭들은 그 얼마이던가.

혈전의 천만리길에 아이들을 품어안으시고 적의 총탄도, 모진 추위도 다 막아주시며 끝끝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해방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키워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라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미래를 사랑하라!》.

이 구호를 한생의 신조로 간직하시고 한평생을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로 빛내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업적과 풍모는 세월이 흐를수록 만사람을 울린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그토록 극진한 은정을 부어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꽃봉오리, 보배이며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이라고 하시며 장장 수십성상의 혁명령도사를 열렬한 후대사랑의 력사, 미래중시의 력사로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속에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사랑의 꽃우유차는 변함없이, 쉬임없이 락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을 찾아 달려왔고 이 땅의 명당자리들에 우리 아이들의 메아리와 소년궁전, 야영소들이 일떠섰다. 그 어디에서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그리도 랑랑히, 그리도 드높이, 끝없이 울려퍼지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은 한평생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후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또 하나의 혁명의 전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며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조국의 미래를 그토록 만발하게 가꾸신 자애로운 어버이, 태양이시다!

바로 이것이 자애로운 태양의 품에 안겨 미래의 역군들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며, 그들이 목청껏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온 나라의 인민들이 다시금 심장깊이 아로새긴것이다.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는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따라 이 땅우에 펼쳐히, 감동깊이 엮어지고있다.

몇해전 4월의 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최전선으로 나가시던 길에 야영소개건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 정형을 알아보시려고 천금같은 시간을 돌여 이곳을 찾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멋지게 꾸려진 야영소를 기쁨속에 일일이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안겨든것은 야영소구내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글발 《세상에 부럼없어라》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빛을 뿌리는 그 글발을 이윽토록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적들과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면서도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한 래일을 그려보군 한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적수준에서 완공된 야영소를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도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것 같다고,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아이들의 야영소의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극진한 마음을 기울이시고서야 또다시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사람들은 격정으로 눈시울 적시였다.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세상을 둘러보아도 세대와 년대를 이어 이 땅, 이 하늘아래 그토록 감동깊이 펼쳐지고있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폭보다 더 뜨겁고 아름다운 화폭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을 둘러보면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 피기도 전에 시들어가는 꽃망울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히다하게 전해져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는것이 오늘의 세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남녘땅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생죽음을 당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것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땅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피심속에 훌륭하게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궁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원합단체대회에 친히 참석하시여 하신 축하연설의 구절구절이 숭엄히 메아리쳐온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울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오늘도 이 땅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은동지는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을 특별히 귀여워하고 사랑한다고, 이것은 그의 숭고한 후대관의 발현이며 그의 천품이기도 하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한없이 자애로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 높이 부르며 어엿이 자라 어른이 되는 그때에 우리 후대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품어안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주인공들로 성장시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절감할것이다. 그리고 길이길이 노래하며 칭송할것이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만발하게 꽃펴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더 밝고 창창한 조국의 래일을 보며 온 나라의 천만군민이 리치는 격정의 웨침이 강산에 메아리친다.

북부피해지역 아이들아, 더욱 밝게 웃어라.

온 나라의 아이들아, 더욱 활짝 꽃펴나거라.

너희들에게는 한없이 친근하고 위대하신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단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백전백승의 당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벽성군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노르웨이, 스웨리예, 앙골라, 말리에서 경축모임, 좌담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독보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역위원회의 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하나이라고 하면서 우리 당이 장구한 기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수십년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의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다고 말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당인 조선로동당은 70여성상 자기가 나아갈 길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전진하여왔으며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보다 밝은 미래가 펼쳐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앙골라 자이레주 보건국장은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우리는 조선인민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말리 꼴레뜨그롭 행정담당 부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이 펼쳐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는 결코 공상이 아니며 먼 앞날의 일도 아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에 따라 조선의 방방곡곡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에 자기 운명과 미래까지 다 맡기고 당의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노르웨이,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북부전역에서 전화위복의 대승리를 이룩해간다

유서깊은 회령땅에 울려퍼지는 인민복무전만세의 함성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인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회령시의 인민들과 힘을 합쳐 40여일만에 오봉리와 유선지구, 송학지구, 인계리 등지에서 1 803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완공하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현명한 령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회령시현장지휘부 인민무력성 책임일군들은 당의 결심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할 억센 의지를 안고 공사시작부터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그들은 공사전반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예견성있는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전투장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모든 지휘관, 군인들이 큰물피해복구전투의 가장 힘겨운 대상, 제일 어려운 과제를 인민군대에 맡겨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일심단결응위전을 과감히 벌려나가도록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55동의 3층살림집과 385동의 단층살림집을 포함한 천수백세대의 살림집들을 맡은 인민군장병들은 인민의 보금자리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하여 드세찬 공격전을 벌려였다.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앞장에는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의 장병들이 서있었다. 부대의 장병들은 기초굴착전투에서부터 드세찬 돌격전을 벌려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이였다. 지휘관들은 관하 부대, 구분대들의 전투현장들에 세멘트와 강재, 목재는 물론 세부자재들까지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진행하는 한편 아빠트의 매 층들에서 벽체축조와 층막휘틀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겨나갔다.

조선인민군 장춘원소속부대의 장병들도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가며 살림집건설에서 입당백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자동차, 기중기를 비롯한 물전기재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자재와 기공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벽체축조와 층막콩크리트치기, 내외부미장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부대에서는 100명의 군인들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는 한편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모든 군인들이 따라배워 전투장마다에서 집단적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당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심장에 새겨안은 조선인민군 궁호식소속부대의 장병들도 공공건물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모든 군사정치일군들이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전투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병사들의 심장속에서 충정의 불길, 애국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부대에서는 공정별로 기술협의회, 공법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군인대중의 창의창발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조선인민군 류화협소속부대의 지휘관, 군인들은 당의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우는 영예로운 투쟁에서 전초병이 될 의지를 안고 사생결단의 전투를 벌리였다. 모든 군인들이 항일의 나날 북부국경일대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투쟁방식, 생활방식을 구현하여 두만강연안에 전화위복의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투쟁에서 불씨가 될 의지를 안고 매일 공사실적을 부쩍 높이였다.

조선인민군 리철훈소속부대의 장병들도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치였다. 부대에서는 모든 지휘관, 군인들이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실속있게 진행된 보여주기와 기술학습 등을 통하여 지휘관, 군인들은 설계에 따르는 공법상요구를 깊이 파악하였으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순결한 량심을 바치였다.

조선인민군 신봉철소속부대, 허상옥소속부대에서도 립체전, 심멸전을 힘있게 벌려 3층살림집건설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단층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안영식소속부대를 비롯하여 유선지구와 송학지구, 인계리에 전개된 각급 부대의 장병들도 당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뼈에 새기고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전투를 벌리였다. 부대에서는 살림집건설전투가 벌어지는 유선지구의 여러 지역들에 전개력있는 지휘관들을 파견하여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부대가 단층살림집건설에서 시작으로 제일먼저 통장훈을 부르도록 하였다. 송학지구에 전개된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도 조건은 어렵고 과업은 방대하였지만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는 인민군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은 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회령시민들에게 본보기로 되였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수재민들에게 돌려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피해복구전투에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렸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새로운 복구기적을 창조하려는 억센 의지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들은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에 순결한 량심을 바치면서 피해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20여동에 43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또한 큰물로 파괴된 근 30㎞의 도로를 짧은 기간에 복구하여 당의 은정이 깃든 물자들과 건설자재들이 제때에 현지에 가닿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1만 3 000여㎥의 통나무와 6만여대의 발대, 3만 4 500㎡의 구들들을 생산하여 인민군대에 보내줌으로써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큰 기여를 하였다.

력사의 땅 회령시에서 높이 울려퍼지는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만세의 함성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만천하에 힘있게 구가하고있다.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산군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무산군피해복구전투장에 달려나온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살림집 및 공공건물건설에서 전화위복의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 부대의 장병들은 자기들이 맡은 50동의 5층살림집과 169동의 단층살림집을 포함한 1 486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완전히 결속하였다. 완성된 살림집지구들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보장을 위한 옥외망공사가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5개의 변압기실과 500㎡의 정화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대상들도 완공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시대의 기수, 돌격대가 되여 당이 부르는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여야 합니다.》

북부전역에서 피해를 가장 혹심하게 입은 무산군의 복구전투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만난을 뚫고나가며 승리의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려왔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만장약한 인민군장병들은 살림집완공에 이어 맡은 대상공사들을 빛나게 결속할 충천한 열의를 안고 마지막 총결사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친부모, 친형제를 위하고 제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각 부대의 군인들이 건설물마다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도록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현장지휘부 책임일군인 김형룡동무는 새로 건설된 독소지구 살림집들의 물원천이 부족하다는것을 알고 즉시 현지에 나가 사소지구에서 물원천을 찾아내여 자연흐름식급수체계를 세우도록 대책을 세움으로써 먹는물보장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새집들이할 주민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집집마다 땔감들도 그득히 쌓아놓고 삼과 목탄이, 비지루를 비롯한 도구들까지 놓아주도록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해나가고있다. 상하수도관류를 비롯한 자재보장에서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 이들은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면서 옥외상하수망공사, 전력계통공사를 비롯한 마감공사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북부전선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조선인민군 권영학소속부대 장병들은 그 사랑, 그 믿음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정상조소속부대, 정광명소속부대, 라청일소속부대 군인들과의 협동작전을 벌려 건설장적으로 제일먼저 13동에 260세대의 5층살림집건설을 완성하는 전과를 올렸다.

조선인민군 안정남소속부대 군인들도 친부모, 친형제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간다는 자각을 안고 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부대지휘부에서는 건설경험이 있는 기술력량을 미리 준비한데 기초하여 12동의 5층살림집마감공사에서 총공격전을 벌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결속하였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 장병들도 대친실전투장마다에서 떨치던 단숨에의 기상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살림집건설격전을 벌려 승리의 결승주로에 들어서고있다말았다.

조선인민군 한정웅소속부대, 신명섭소속부대, 안종성소속부대를 비롯한 독소리피해복구전투장에 달려나간 인민군장병들은 지난 10월 30일까지 480여세대의 단층살림집건설을 전부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공공건물공사에서도 위훈을 떨치고있다. 이들은 날씨가 차지는데 맞게 비닐바막과 나래, 방수로로 보온덮개를 씌고 난로들을 들여다 온도보장을 해가며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에 선 돌격병사의 자세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마련해가는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일떠선 행복의 보금자리들에서는 미지않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소리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504세대 살림집공사 결속

연사군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주체조선의 만리마속도가 창조되고있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성과가 북부전역에서 련이어 이룩되는 속에 연사군에서 승전포성이 울려퍼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어주신 공격화살표를 따라 연사군으로 급파되여온 인민군장병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40여일동안에 16동에 504세대의 3층살림집들을 완공하여 옵지구와 남작리지구에 사회주의선경거리, 선경마을을 형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연사군현장지휘부 인민무력성의 일군들은 인민군대가 앞장서 최후승리를 향해 총돌격, 총매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공사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게 해나갔다. 연사군으로 급파된 여러 부대들에서는 건설경험이 부족한 조건에서 전문건설부대를 배합하여 호봉별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와 함께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남달리 분리한 수송조건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갔다.

백두명봉과 잇닿은 력사의 땅 연사군에서 남먼저 살림집완공의 승전포성을 울릴 결사의 각오를 만장약한 우리의 미더운 인민군군인들이 전투장마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조선인민군 유성철소속부대 장병들은 당이 안겨준 배짱과 기질로 앞장서 내달림으로써 살림집완공기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기여를 하였다.

전투좌지를 정한 즉시 이곳 지휘관들은 현지를 깊이 료해한데 따라 12개 호동에 군인건설자들을 분산배치하고 립체전의 파감한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장일선, 김영선동무를 비롯한 부대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사상과 뜻대로 오늘의 전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목표를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면서 병사들과 함께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갔다.

조선인민군 주명철소속부대 장병들은 휘틀조립과 혼합콩타입 등 모든 공정마다에서 두뇌, 세륜적 맞아안고 뛰고 또 뛰여 지난 11월 1일 사지지구 9호동 3층살림집을 제일먼저 완공하였다. 공사기간 여러층분에 해당한 철근과 세멘트, 골재를 시공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한 부대지휘관들의 민틈없는 작전은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부대군인들은 명령받은 병사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도 있을수 없다는 결사관철의 각오를 백배하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11월 3일까지 사지지구 10호동, 11호동, 12호동, 남작리 2호동 살림집건설을 련이어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군 리영하소속부대 장병들도 11월 3일까지 5개 호동의 살림집건설을 전부 끝내고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였다. 부대장병들은 도화선에 불을 달고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용맹용사의 자세로 격전의 나날 하루에 수백㎥의 혼합물을 운반함으로써 정신력의 강자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과시하였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어제날의 300%과제를 오늘의 100%로 수행하면서 살림집을 빠른 속도로 일떠세웠고 내부마감공사에서도 높은 공격속도를 보장하였다.

조선인민군 최봉섭소속부대 장병들이 제일 많은 대상을 맡아안고 불같은 공격전을 벌려 사지지구와 남작리 소층살림집건설에서 련이어 승리의 함성을 터쳐올리였다. 매일매일의 전투실적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린다는 충정의 마음안고 부대장병들은 살림집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도록 건설하기 위한데 힘을 집중하였다. 공사구역안의 지대를 항상 깨끗하게 거두는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웠으며 남작리살림집외장재칠하기와 지붕철판씌우기도 제일먼저 끝내여 인민군대의 일본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머니 우리 당의 결심이 어떤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가를 뚜렷이 과시한 인민군장병들은 지금 강하천정리와 도로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친부모, 친형제들을 위하는 심정으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전역인 무산군피해복구전선에 달려나온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 140동에 312세대의 단층살림집공사를 전부 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인민보안성에서는 당의 전투명령을 접수하는 즉시 300여세대의 살림집공사를 단숨에 해제끼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성의 책임일군들부터가 피해복구현장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공사진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걸린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긴 성책임일군들은 세멘트와 강재 등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공사를 무조건 끝내도록 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 장병들이 룡산리의 25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을 당앞에 걸의다진 날자까지 승리적으로 결속하였다.

리창철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구분대들사이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였다.

혁명열, 투쟁열이 온 공사장에 차넘치는 속에 부대장병들은 2일동안에 기초굴착공사와 살림집축조에 필요한 블로크생산을 결속한 기세로 공격속도를 더욱 높여 20일만에 살림집골조공사를 완공하고 내부공사에 진입하였다. 주영호소속구분대의 전투원들은 큰물피해로 아직 물이 줄지 않은 조건에서도 공사기일을 보장하기 위해 세멘트마대를 이고 주저없이 강물에 뛰여들면서 투쟁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부대장병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해 불과 40여일만에 살림집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되였다.

922건설돌격대 인민보안성려단의 장병들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힘차게 내달려 지난 10월말까지 오봉리에 수십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웠다.

천용성, 봉원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오늘의 전투는 단순한 복구전투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치렬한 전쟁이라는것을 전투원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며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이들은 공정계획을 높이 세운데 맞게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며 제기되는 문제들도 기동적으로 풀어주었다.

려단의 전투원들은 모래층인것으로 하여 기초굴착이 어려웠지만 침강공법을 받아들여 기초굴착공사를 제기일에 해낸 기세로 공사속도를 높여 922건설돌격대적으로 제일먼저 맡은 살림집건설을 결속하였다.

항강도인민보안국, 함경북도인민보안국을 비롯한 성과 각 도인민보안국의 인민보안원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며 살림집완공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높은 공사실적과 지휘관의 역할

원산지구건설돌격대 남포시려단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임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연사군 옵의 구소지구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원산지구건설돌격대가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국가건설돌격대적으로 제일먼저 맡은 살림집건설을 결속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건설력량과 장비에 있어서 다른 시공단위들보다 겉고 우월하다고 볼수 없는 돌격대가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력량이 절반정도인 조건에서도 한동의 3층살림집골조공사를 단독으로 맡아 수행하고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는데 결정적역할을 한 남포시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 답을 찾아보게 된다.

불씨와 불길

살림집건설을 제일먼저 끝낸 비결을 알고싶어하는 우리에게 항구구역대대 대대장 류정철동무가 들려준 이야기는 시사하는바가 컸다.

지난 9월말 려단정치부에서는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그런데 려단에서 내세운 전형단위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건설 및 기술력량도 미약할 뿐아니라 경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적이 그리 높지 못하던 항구구역대대가 선정된것이였다.

려단지휘관들은 전형단위를 선정한데 맞게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이며 항구구역대대를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힘을 넣었다. 정치부장 리성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대대정치일군들과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돌격대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높여나갔다. 려단과 대대의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밤이 새도록 다음날작업에 필요한 세멘트와 흔석을 비롯한 자재들을 날랐다. 매일 아침 전투장으로 달려나온 대대의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미리 작업준비를 다 해놓고 일손을 다그치는 정치부일군들의 모습을 보는것이 첫 일과로 되다싶이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경쟁이 선포된 이후부터 항구구역대대는 다른 대대들을 하나씩 따라앞서기 시작하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실천으로 대신하는 지휘관들의 이신작칙, 치차처럼 째인 전투조직과 지휘에 떠받들려 항구구역대대는 려단적으로 제일 앞선 단위로 이름떨치게 되였다.

앞을 내다보며 작전한 보람

살림집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 남포시려단의 전투실적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당겼다.

건설초기에는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던 려단이 날이 갈수록 다른 려단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뛰여올랐던것이다.

그 비결은 려단에서 벽체축조에 필요한 블로크생산을 확고히 선행시킨데 있었다.

좋은 날씨가 계속되던 지난 9월 하순의 한낮에도 려단에서는 블로크생산전투장의 곳곳에 불무지를 피워놓고 블로크양생에 큰 힘을 넣었다. 다른 려단들이 살림집기초굴착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며 공사실적을 올리고있을 때인것으로 하여 돌격대지휘관들속에서 의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려단지휘부에서는 블로크생산을 기초굴착보다 우선시하며 시종일관 밀고나갔다. 건설인원이 다른 려단에 비해 절반정도인 려단에서 기초굴착과 블로크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가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블로크생산을 선행시키면 그만큼 양생시간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그러면 기초공사가 끝나는 즉시 벽체축조속도를 높일수 있다, 바로 이것이 려단장 권영일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의 속생각이였다.

단 이들동안에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수만장의 블로크를 생산한 이들은 그 기세로 기초공사도 와닥닥 해제끼였다.

블로크생산을 확고히 앞세운 결과는 려단이 골조공사에 진입한 즉시 효력을 나타내였다. 충분히 양생된 블로크를 리용하여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건설물의 질을 최대로 보장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갔다.

공사전반을 내다보고 예견성있게 작전을 세운 지휘관들의 조직사업에 의하여 려단은 연사군의 시공단위들가운데서 제일먼저 3층살림집골조공사를 완성할수 있었다.

이들처럼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앞을 내다보며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때 당의 전투명령을 앞장에서 집행할수 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만리마의 발구름소리여,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퍼지라!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전형단위로 자랑떨치고있는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 수송전사들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은 20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충정의 철아진군을 힘있게 벌려 지금껏 지구를 근 280바퀴나 돈 거리와 맞먹는 1,100여만km의 무사고주행을 보장하고 수많은 년간계획, 200일전투계획완수자들을 배출하였다. 철도운수부문에서 200일전투의 전형단위로, 만리마선구자집단으로 자랑떨치고있는 이들은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의 수송전투에서도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보답하였다.

우리의 운행길은 당중앙뜨락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서평양기관차대의 기관차 《붉은기》 5385호에 동승하고 북행길을 떠났다.

산과 들을 지나고 높고낮은 계곡을 꿰질러 질풍같이 달리는 기관차의 우렁찬 동음과는 달리 고즈넉한 정적만이 흐르는 운전실에서 묵묵 보풀이 인 책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책에는 200일전투의 나날 그들의 운행기록이 빼곡이 적혀있었다.

평양과 고천, 무산과 회령을 비롯한 기관차의 출발시며 도착장소, 낮과 밤이 따로없는 운행시간과 그들이 실어나른 수만t의 짐…

비록 간단한 수자와 지명들, 짤막한 기록의 글줄밖에 없었지만 저 멀리 분계선선도시와 동서해기슭, 조국의 북변 한끝에 이르기까지 혈맥처럼 뻗어간 이들의 운행길을 이어놓으면 그대로 조국의 지도가 되고 운행시간을 다 합치면 내 조국에 흐르는 날과 달이 되며 그들이 실어나른 짐에서 조국을 떠받드는 강철기둥이 솟고 만년언제가 일떠선다고 생각하니 한페지한페지를 무심히 번질수 없었다.

《운행일지에 만짐을 달고 무사고주행으로 돌아왔다고 써넣을 때가 제일 기쁜 때입니다.》

지금껏 말이 없던 책임기관사 김광철동무의 이야기였다. 그는 만짐에 대해 늘 범상하게 여겨왔지만 이제는 그 말을 쉽게 외우지 않는다고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질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원수님의 어깨우에서 우리가 그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짐,

철도수송부문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하지만 위대한 어머니당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는 크나큰 로고의 무게가 실린 그 말을 오늘날 우리 기관사들은 페사롭게 외우지 않는다. 그것을 어찌 기관차가 끌수 있는 짐의 한계점이라고 쉽게 생각할수 있으랴.

만짐, 그것은 200일전투기간에 서평양기관차대 모든 승무조들이 심장에 스스로 새겨박은 전투목표였다.

《붉은기》 5385호는 속도를 서서히 늦추며 어느 한 역에 들어섰다. 전방을 긴장하게 살피며 역구내로 들어서는 승무원들의 눈에 대피선에 늘어서있는 여러량의 화차들이 밟혀왔다. 전인기가 없어 대기하고있는 화차들이였다. 그 화차들을 눈여겨보던 김광철책임기관사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세멘트화차구만. 급한 물동일텐데…》

승무원들 누구나 책임기관사의 속생각을 읽고도 남음이 있는것 같았다. 지시를 받은것 없지만 제각기 기관차와 화차의 상태를 살피려고 뛰여나갔고 책임기관사는 역사명실로 달려갔다. 우리도 그를 따랐다.

《역구내에 서있는 세멘트화차들을 우리가 끌겠습니다.》

기관사의 말에 역일군들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첫눈에 보기에도 그들의 기관차가 견인정량을 초과한 상태였던것이다.

《만짐상태에서 한두량도 아닌 화차를 더 끌수 있겠소?》

《북부전선에 가는 세멘트가 아님니까.》

더 긴말이 필요없었다. 잠시후 승무원모두는 견인정량보다 훨씬 많은 짐을 안전하게 끌고 무사고주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에 들어갔다. 기관차와 화차들의 상태를 다시한번 깐깐히 살펴보고 앞구간의 철길로반과 나라날수 있는 정황에 맞는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이윽고 역일군들의 뜨거운 바래움을 받으며 렬차는 역구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의 귀전에는 바래주던 목소리들이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았다.

《역시 수도의 기관차대가 다르구만!》

지난 10월초 이른아침 수도의 어느 한 아빠트창가에서는 어린 딸애를 안은 한 녀인이 점도록 서있었다. 그의 시야에서는 한가닥 실오리처럼 보이는 렬차가 멀리로 사라져가고있었다.

《수연아, 저 기차가 바로 아버지가 탄 기차란다.》

《그런데 아버진 왜 집목으로 오지 않고 다시 멀리로 가나요?》

그 시각 《붉은기》 5255호 기관사인 한승혁동무의 승무조는 비록 자기들이 맡은 임무는 아니여도 긴급히 수송해야 할 중요물동을 당과 조국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준 짐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고 한달이 훨씬 넘는 수송임무를 마치고 평양에 들어서면 길로 또다시 머나먼 운행길을 떠나고있었다. 이번 승무를 마치면 곧 새로 일떠선 중앙동물원에 가자고 딸애와 약속했던 그였다. 역전에서 그는 안해에게 전화를 했다.

《미안하오.》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녀인은 어린 딸애게 나직이 속삭였다.

《아버진 기관사란다.》

그날 점점 멀어져가는 수도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보며 《붉은기》 5255호의 승무원들은 정녕 무엇을 가슴에 새기였던가.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평양과 멀어진다고 생각지 않았다. 한달치고 수십일 지어 한달전부를 운행길에서 보내는 그들을 언제나 뜨거운 정으로 기다림을 알고 바래줄줄 아는 안해와 어머니들, 남편과 자식이 일하는 승무조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남강마을녀성》들이 되여 기관차대로 달려나오군 하는 이런 미더운 혁명동지들이 있어 그들은 또다시 머나먼 수송길을 웃으며 기꺼이 떠나는것이다. 이제 달려가야 할 수천리 먼길은 정다운 집과 가정이 있고 자나깨나 뵙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당중앙뜨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며 이 한말도 새우시고 나라의 세번문을 남먼저 여실 원수님의 어깨우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있었다.

우리의 운행길은 당중앙뜨락과 잇닿아있다!

서평양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심장에 안고 사는 이 신념은 단순히 자기 입리가 수도 평양에 자리잡고있다는 지리적개념에서 나온것이 아니다.

두줄기 궤도를 평도자와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수명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순간의 멈춤이나 드림도 없이 줄기차게 이어가는 신념과 의지의 궤도, 운명의 피줄기로 새겨안았기에 《붉은기》 5372호의 책임기관사인 김종길동무는 북부피해복구전투의 나날 견인불발의 의지로 어느 하루도 기관차에서 내린적 없이 대오의 맨 앞장에서 내달릴수 있었고 선군시대공로자 김명원동무와 박성철, 리성렬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수송전사들이 매일 높이 세운 수송계획을 수행하면서 자진하여 소운전, 견인초과운동을 힘있게 벌려 년간계획, 200일전투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칠수 있었다.

길어지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기관차의 운전실을 세삼스러운 눈길로 돌려보았다. 일년 열두달을 레루우에서 살다싶이 하는 승무원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전부와도 같은 자그마한 운전실, 아마도 여기에는 그처럼 손꼽아 기다리던 자식의 출생소식을 기쁨속에 맞이하던 아침도 있고 초소로 떠나는 아들을 기적소리로 바래워주던 못 잊을 저녁도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몇㎡밖에 안되는 작은 운전실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그것은 운행길의 시작도 끝도 당중앙뜨락과 이어놓고 사는 서평양기관차대 기관사들의 정든 집이였으며 당중앙절사상위의 성스러운 초소였다.

군기앞의 선서는 없어도

깊은 밤이다.

렬차는 북방의 이름없는 산간역에 잠시 멈춰섰다. 차갈이의 짧은 시간에도 기관차점검을 진행한 승무원들은 운전실로 돌아와 제복의 목단추를 잠아달고 오각별이 새겨진 모표를 엄심히 닦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의 제복이며 모자를 세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군복과도 같은 철도제복과 붉은 오각별!

출발에 앞서 서평양기관차대 운전대대에서 목격했던 일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때 승무준비를 갖춘 기관사는 운전사령원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사령원동지, 〈붉은기〉 5385호 승무조는 전투명령을 받기 위해 정렬하였습니다!》

군인과 조금도 다름없는 철도있는 모습과 전투명령이라는 짤막한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운전대대 일군인 리성호동무는 기관사들은 200일전투기간뿐아니라 늘 전투명령이라는 말을 외우며 산다고 했다.

《우리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도일군들의 제복형식과 직급표식을 인민군대에 준하여 정하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전화의 그 나날의 믿음을 대를 이어가며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비록 군인선서를 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병사라는 자각을 순간도 잊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북부전선으로 향한 두줄기 레루우로 돌격대원들을 태운 렬차가 기운차게 달리고있었다. 운전실에서는 나이지숙한 기관사가 긴장하게 앞을 주시하며 기관차를 몰고있었다.

홍안의 시절부터 오늘까지 40년동안 운행길을 달리고있는 김광선동무, 그러나 승무원들은 그가 지금 어떤 초인간적인 의지로 기관차를 모는지 다는 모르고있었다. 시시각각으로 놓아지는 고열과 함께 온몸을 엄습하는 참기 어려운 아픔…

얼마후 렬차는 북부전역에 도착하였다. 렬차에서 내려 전투장으로 떠나는 돌격대원들의 씩씩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던 김광선동무는 으스러지게 틀어쥔 주간제어기우에 그만 의식을 잃고 머리를 떨구었다. 승무원들모두가 목메인 소리로 그를 불렀다.

《책임기관사동지!-》

자동차는 달리다가도 어디서든 멎어설수 있지만 일단 출발역을 떠난 기차는 멈출수 없다. 불비가 쏟아져도 달려야 하고 마지막 피한방울이 진할 때까지도 달려야 한다. 바로 그래서 당과 조국은 철도수송전사들에게 군인과 같은 제복과 군사칭호를 안겨준것이 아니라. 전화의 나날 그 고귀한 제복을 피로 물들이며 최후의 순간까지 렬차를 멈추지 않은 용감한 기관사들의 이름이 서평양기관차대 연혁사에도 별처럼 빛나고있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이 조선에 단 한개의 나사못도 거저 들어가지 못하게 발악하고있는 준엄한 오늘 우리의 철도수송전사들에게는 두줄기 궤도에서의 순간의 멈춤이나 탈선은 곧 조국의 승리와 경제강국건설의 승패로 이어진다는 투철한 자각이 있다.

《분분초초를 다투는 긴장한 전시물자수송으로 언제 날이 밝고 해가 저무는지 미처 알수 없다. 강인근지도기관사와 김대성책임기관사동지는 밀려드는 졸음을 쫓느라 밤새 떠칠째 일어서서 기관차를 몰고있다. 이런 운행길이 처음인 나도 그들처럼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러던 오늘 온 승무조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차갈이의 짧시간에 나는 온몸에 통채로 물을 끼얹고 운전실에 올랐던것이다. 렬일인가고 묻는 박영범기관사동지에게 북방의 찬물로 아무리 세수를 해도 마찬가지여서 아예 옷을 입은채로 〈미역〉을 감았다고 말했다. 순간 승무원들속에서 폭소가 터져올랐지만 졸음을 쫓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내 마음은 날것만 같이 기뻤다. 아니 기관사동지들이 나를 대견히 바라보는 그 눈빛이 더 기뻤다.》

이것은 북부전역을 주름잡으며 한달반이 넘도록 전시물자수송전투를 벌린 《붉은기》 5368호의 김성훈기관조사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이다.

북부전역의 모든 서평양기관차대 수송전사들이 전투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수놓아가고있다. 자기 집 동구길보다 운행길의 구간을 손금보듯 더 잘 안다는 그들이지만 대부분의 기관사들이 구배심한 북방의 로선이 처음이여서 제기되는 난관과 애로는 헤아릴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식사시간마저 아까와 렬차에서 끼니를 에우면서도 전화의 전시수송전사들처럼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자기앞에 맡겨진 수송임무를 날마다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렇듯 오늘 서평양기관차대 수송전사들은 그야말로 경제강국건설의 선봉에서 시간을 날과 달로가 아니라 분초로 계산하며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군복을 입고 불비속을 헤쳐가서만이 병사가 아니다.

경사급한 령길에서 예상치 못했던 정황으로 기관차바퀴가 헛돌이하는 위급한 순간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어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원하고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린 《붉은기》 6027호 승무원들인 오광철, 윤충성동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어찌 불뿔는 원쑤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전화의 육탄용사들과 비기지 않을수 있으랴. 불비쏟아지는 전호가에서 무기가 고장났다고 후방으로 물러서는 병사가 없듯이 인적없는 허허벌판에서, 때로는 높고 험한 산중에서 자력자강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철도로동계급의 본때로 자체로 치렬한 수리전투를 벌려 전시수송임무를 빛나게 수행한 최영길, 오태영, 김광혁, 한성철동무와 같은 철도수송전사들의 투쟁기풍을 우리 어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던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있으랴. …

기적소리를 울리며 렬차는 또다시 궤도우를 달린다. 차창으로 흘러드는 서늘한 북방의 새벽공기와 함께 유폐한 기관조사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제부를 적신다.

…

적탄알이 비발치는 포화를 뚫고
사선을 헤쳐온 젊은 기관사
피어린 철리길 만리를 간다 해도
수명님께 바친 명세 지키여 싸우리

이윽고 노래는 끝났다. 그러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아니 노래도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운행길도 끝나지 않았다. 증송의 기적소리로 매일, 매 시각 군기앞의 선서를 대신하는 철길우의 참된 병사—철도수송전사들의 복무의 길은 아득히 뻗어간 두줄기 레루처럼 언제나 줄기차게, 변함없이 이어질것이기에.

궤도에는 자욱이 남지 않는다

불꽃이 날린다.

날카로운 호각소리, 용접기소리, 천정기중기의 동음이 한데 어울려 서평양기관차대의 드넓은 수리현장을 뒤흔든다.

상대방의 귀전에 두손을 모아붙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젊은 수리공, 곱슬머리에 눌러붙이다싶이 쓴 모자며 작업복엔 마치도 포연속을 누빈 병사의 군복마냥 용접불꽃자리와 기름자욱이 력력하다.

《우리 기관차대에서 24시간 고요를 모르는 곳입니다. 기관차들의 무사고정시운행이 바로 우리 중대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수리중대장 박상식동무는 수리에 들어가는 기관차의 입출고과정과 견인전동기대수리소대, 보조전동기대수리소대, 용접소대, 제동소대 등 10여개의 수리중대 소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이름도 생소한데다 소대의 수를 미처 꼽을수 없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기관차의 부분품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그 많은 부분품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나사못 하나라도 제구실을 못하면 기관차는 멎고맙니다.》

우리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수리중대의 작업현장을 돌려보았다. 못못에 서있는 우람한 기관차본체마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무슨 일인가에 열중하고있었다. 기관차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그 숨결과 맥박은 바로 저 한사람한사람의 구슬땀배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관사들은 비행사와 같다는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그러니 기관차수리공들은 비행기의 기술근무원이나 같지요. 새것처럼 수리되여나오는 기관차를 볼 때마다 그들의 땀없는 수고에 대해 많은걸 느끼게 됩니다.》

함께 수리중대현장을 돌아보던 기관차대 일군인 조현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기관차수리공들의 노력과 헌신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자기 입리, 자기 직업에 대한 그들의 보람과 긍지는 어디에 있는가.

기관차는 레루우를 달린다. 한치의 편차도 없어야 하는 레루는 침목에 의해 유지된다.

레루와 침목,

비록 사람들이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요란한 일터는 아니여도, 발전소의 치솟는 언제나 전야에 무르익는 곡식처럼 해놓은 일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뜨이는것은 아니여도 그들은 레루를 받들고있는 침목처럼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자기의 성실한 노력과 땀을 바쳐가고있다.

원쑤들의 제재와 암살소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지금 철도운수부문에도 겹쌓이는 난관과 애로는 헤아릴수없이 많다. 자재와 원료, 부속품과 동력의 부족으로 기존의 상식으로는 기관차수리를 제대로 진행할수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그들은 사소한 타발이나 구실도 모른다.

오늘 서평양기관차대 로동자, 기술자들은 피타는 탐구와 노력으로 기관차동축베아링내환재생지구, 소결합금습판, 바퀴용착용융접봉을 비롯하여 기관차수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구장비들과 자재, 부속품을 모두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고있다.

지난 9월 어느날이였다. 수리중대 작업현장으로 그날 하루에만도 10여대의 기관차가 입고되였다. 규정상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월시수리, 소수리였지만 하루동안에 그렇게 많은 기관차가 들어오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그들은 200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쉬임없이 찾으며 선전활동을 벌리였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과 함흥뜨락또르부속품공장, 동흥산구역 부민협동농장…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와 《동지애의 노래》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감화력있게 진행한 그들의 도서해설선전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지난 9월초에는 려명거리건설장에도 달려나가 해설선전을 적동적으로 진행하였다.

가정부인들이 여러날 집을 떠나 선전활동을 벌린다는것이 헐치 않았다. 하지만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라는 긍지를 안고 떨쳐나선 그들은 선전활동을 활기있게 진행하며 대중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지난 기간 전국출판물보급소 보급원들의 도서해설선전경연에서 두차례나 최우수상을 수여받았고 면모에서나 출판물보급사업에서 도적으로 앞선 단위로 되고있는 함흥시 동흥산구역출판물보급소, 이곳 보급소의 출판물보급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선전을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들의 힘있는 선전활동에 의해 구역안의 가는 곳마다에서 200일전투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본사기자

로농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

총대가정의 긍지를 안고

개천탄광 운반갱 부분당위원장 김근성동무와 후방공급과 과장으로 일하고있는 한경란동무는 탄광이 자랑하는 부부혁신자들이다.

자식들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그들은 전투정치훈련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는 자식들의 자랑을 담은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석탄산을 더 높이 쌓을 불같은 결의를 다지군 한다.

하기에 김근성동무는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정을 전투력있는 단위로,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진 집단으로 만들어 탄광적인 본보기단위가 되게 하였으며 안해 한경란동무 역시 탄부들을 위한 후방공급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얼마전에도 김근성동무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탄광의 석탄생산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도 이들은 총대가정의 자랑을 안고 석탄증산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부부혁신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전순희

농장이 자랑하는 녀맹원들

신포시 룡중협동농장에 가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녀맹원들을 볼수 있다. 그들이 바로 초급녀맹위원장 김복순동무와 김청순, 김선화, 김금실, 정선희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녀맹원들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타는 열의를 안고 녀맹원들은 거름실어내기와 씨뿌리기, 김매기와 가을걷이 등 주요영농공정마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특히 그들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식을줄 모르는 혁명열, 투쟁열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예술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전당, 전군, 전민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았을 때에도 녀맹원들은 피해복구전선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당면한 가을걷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언제나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서는 이곳 녀맹원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은 위훈의 불씨가 되여 농장원들을 대중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영옥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는 도서선전

함흥시 동흥산구역출판물보급소에서

함흥시 동흥산구역출판물보급소의 출판물보급원들이 혁명도서를 통한 위대성선전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호소적이고 전투적이면서도 감화력이 큰 이들의 위대성선전은 근로자들의 심장의 박동을 세차게 울려주어 200일전투의 격전장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에서는 위대성도서선전을 예술선동과 잘 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장편기행서사시 《사향가》를 가지고 진행하고있는 해설선전활동이 그 한 실례로 된다.

소장 한춘화동무의 발기에 따라 보급소에서는 서사시에 감화력있는 예술선동을 배합하여 도서선전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급소에서는 우선 해설선전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에 많은 품을 넣었다.

전투현장들에서 원창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리용하여 진행하게 될 도서선전인것만큼 짧으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아야 큰 실효를 거둘수 있었다.

이에 맞게 소장과 당세포위원장 장후남 그리고 리련심동무를 비롯한 출판물보급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도서를 읽고 그에 기초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해설문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가들의 방조도 받아가며 해설문을 만들었고 그에 맞게 노래곡목들도 잘 선정하였다.

한편 보급소에서는 출연자들의 화술기량을 비롯한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많은 출판물보급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전활동의 준비를 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출판물보급원들은 하루일을 마친 후 훈련을 진행하군 하였다.

나이가 많지만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면서 화술기량을 높여나간 문춘심동무를 비롯한 보급원들은 도서해설선전준비를 빈틈없이 하는데 많은 품을 넣었다.

목표를 높이 세우고 창작전투를 벌린 결과 며칠사이에 보급원들의 수준은 높아졌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그들은 200일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을 쉬임없이 찾으며 선전활동을 벌리였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과 함흥뜨락또르부속품공장, 동흥산구역 부민협동농장…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와 《동지애의 노래》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감화력있게 진행한 그들의 도서해설선전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지난 9월초에는 려명거리건설장에도 달려나가 해설선전을 적동적으로 진행하였다.

가정부인들이 여러날 집을 떠

본사기자

박근혜《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자, 거대한 부정부패세력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자

남조선도처에서 30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제2차 범국민집회와 시위, 초불투쟁 전개, 서울에서 20만여명 참가

5일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제주도, 전라북도 전주, 경상북도 경주, 포항, 경상남도 김해, 진주, 남조선강원도 강릉, 원주 등 남조선도처에서 박근혜역적패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오라 박근혜》 제2차 범국민집회와 시위, 초불투쟁이 일제히 전개되었다.

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의 련대조직인 2016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의 주최로 전개된 투쟁들에는 시민사회계,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층 단체성원들과 시민들, 대학생들과 중, 고등학교 학생들, 부모들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 야당의원들 등 전지역의 각계층 군중 30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서울시내 여러곳에서는 대학생들과 중, 고등학교학생들이 《하야하라 박근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등의 글들이 씌어진 구호판과 프랑카드들을 들고 사전집회를 가지였다.

어둠이 깃들어 박근혜역도가 둥지를 틀고있는 청와대앞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불투쟁이 시작되였다.

민심의 완전한 버림을 받은 박근혜를 기어이 심판대에 끌어낼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모여든 남녀로소 20만여명이 광화문광장과 주변도로는 물론 세종문화회관주위까지 빼곡이 들어차 이 일대는 그야말로 불의대하를 이루었다.

초불투쟁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 《광장에서 분노를 표출하다》집회에서는 전국교직원로동조합 경기지부장, 리화녀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들, 전지역의 69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생시국회의 공동대표들 비롯하여 교원, 대학생, 공무원, 종교인 등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학생들마저 현이은 시국선언운동을 하고 교실들에서는 《대통령》퇴진을 요구하는 노래가 울려퍼지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범국민집회를 혁명에 비유하며 그들은 《과거 일제치하의 항일투쟁과 4.19봉기에 앞장섰던 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대통령》퇴진뿐아니라 배후에서 뒤리를 틀고있는 거대한 무정부패세력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웨쳤다.

지금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혀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도중 경기도에서 온 주민들은 박근혜에게 찍어준 그 표를 돌려받으려고 왔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추태에 분하여 참을수 없다고 격분을 터쳤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하였다.

파쑈경찰이 223개 중대 수만명에 달하는 전례없이 방대한 폭압무력을 거리들에 내몰아 차벽을 설치하고 진압대세를 취하였다.

이에 아랑곳없이 시위자들은 저저마다 초불과 함께 《하야하라》, 《박근혜퇴진》, 《새누리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박근혜대통령 퇴진하라.》고 웨치며 도도히 행진하였다.

종로와 을지로, 서울광장을 돌아 시위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 다시 모여 2부 《초불을 들고 박근혜퇴진을 웨치다》집회를 시작하였다.

로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성원들과 문화예술인, 녀성, 청소년 등 각계층 시민들은 저마끔 연단에 올라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박근혜의 퇴진을 이끌어낼수 없다, 오직 국민들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야 가능하다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박근혜《정권》은 썩은 권력이므로 쓰러져야 한다는 내용의 《박근혜퇴진 국민명령 선언》이 랑독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과말고 퇴진하라.》,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수많은 군중이 광장에 그대로 남아 박근혜일당의 국정롱락행위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도 7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지부들로 구성된 《국정롱단 헌정파괴 박근혜퇴진 광주운동본부》와 민주주의광주행동, 백남기농민 광주투쟁본부, 《싸드》저지광주행동 등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집회를, 청년단체와 대학생들이 광주청년하야집회를 가지였다.

정치인, 농민, 시민사회단체성원들, 학생들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정주부들 비롯한 남녀로소 5 000여명이 《이게 나라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내가 이러기 위해 국민이 됐나》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박근혜퇴진》의 함성을 터쳐였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자들》이라고 하면서 《정권》퇴진과 《새누리당》해체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이라고 웨치였다.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 장본인인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권》퇴진요구는 더욱 거세질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초불집회가, 대구와 대전, 세종시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로동단체관계자들 등의 참가하에 《정권》퇴진시국집회와 초불시위행진이 전개되였다.

제주도에서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초불집회가, 울산에서는 민중총궐기 울산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울산시민시국행동이 열리였다.

남조선강원도 원주시의 《정권》퇴진촉구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결의집회에서 시민들은 시위행진에 이어 초불들을 들고 《국민기만, 국정롱단, 민주주의, 헌정질서파괴 박근혜퇴진촉구시국집회》를 가지고 박근혜《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경상북도 포항, 경기도 용인 등 전지역에서 시국선언운동이 계속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6개 대학 총학생회가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소속 대학생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등을 요구하였다.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시민집회에서는 90여개 단체를 망라한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의 결성이 선포되였다.

남조선의 《헨합뉴스》와 《KBS》, 《MBC》, 《CBS》방송들, 《뉴시스》,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은 《더 격해진 민심…박근혜하야초불 넘쳤다》, 《주요도시에서 주말 초불시위로 대통령하야 촉구》, 《아이의 눈에 비친 초불》, 《규모커진 초불집회》, 《거리로 쏟아진 분노의 민심》, 《성난 민심 30만개 초불로…12일 100만 모이자》, 《새벽을 위하여 다소른 30만 초불의 화력》, 《초불아래 하나된 목소리 리념, 세대 초월》, 《밤늦게까지 이어진 위침》 등의 제목으로 투쟁소식들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박근혜퇴진〉이라는 구호가 더는 어색하지 않을만큼 현정부를 향해 격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지률이 5%로 추락할만큼 신뢰를 잃은 박근혜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다.》, 《전날 대통령이 사과담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여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격해지고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기에 몰린자의 졸개교체놀음

박근혜역도가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파문을 가라앉히고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에 매달리고있다. 역도가 졸개들에 대한 교체놀음을 벌리면서 최재경이라는자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며칠전 박근혜역도는 청와대인사개편의 일환으로 우병우를 민정수석비서관자리에서 떼고 대신 악질검사출신의 최재경을 올려앉히였다. 박근혜가 그처럼 끈질기게 비호하며 끼고돌던 우병우를 하는수없이 차버린것은 날로 확대되며 제 명줄을 위협하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덮어버리고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에서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을 빚어낸 박근혜역도에 대한 인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건의 주모자들인 박근혜와 최순실, 그의 손발노릇을 해온 청와대패거리들의 부정부패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며 역도가 범죄의 책임을 지고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에 바빠난 박근혜역도가 급기야 상투적인 꼬리자르기식수법으로 말썽거리인 우병우를 떼버리고 그 자리에 최재경을 올려앉힌것이다.

최재경으로 말하면 검사의 탈을 쓰고 퍼뢰보수패당과 한짝이 되여 권력층의 부정추문사건들을 무마시키는데 피눈이 되여온 독재《정권》의 더러운 앞잡이이다. 이자는 리명박역도가 련루된 BBK주가조작사건, 내곡동주택부지매입사건, 민간인불법사찰사건으로 온 남조선이 떠들썩할 때 형식상의 수사놀음을 벌려놓고 몇몇 송사리들이나 제물로 만들어 각계의 비난을 자아냈다. 《세월》호침몰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적극 가로막은것도 바로 최재경이라고 한다. 이 몇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최재경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아무런 주대도 없이 권력앞에 아부굴종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앞장서온 최재경의 기질을 잘 알고있는 박근혜역도는 헤어나기 어려운 궁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지금 이자를 적극 써먹으려 하고있다. 최재경에게 검찰을 내맡기고 그를 배후조종하면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하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가려는것이 청와대악녀의 속타산인것이다.

제2의 우병우인 최재경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자리에 올라앉아 박근혜의 입김에 놀아나게 된 이상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진상은 밝혀질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건의 첫째가는 수사대상은 박근혜역도와 청와대라고 하면서 범죄의 장본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해나서고있다. 하지만 똑두각시에 불과한 최재경이 검찰수사를 좌우지하고있는 한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온전한 수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것이라는것이 남조선언론들의 평이다. 더우기 퍼뢰보수패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자들을 비호하는데 키송을 부리고 지금도 박근혜역도의 《호위무사》격으로 놓아대는 최재경이 지휘하는 검찰수사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겠는가 하는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퍼뢰역도의 처사에 대해 야당들이 《검찰을 통제하려는 박근혜의 씨나리오가 가동되였다.》고 비난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최순실이 며칠전 두번째 변호인을 채용한것도 사건을 흑막속에 묻어버리려는 박근혜역도의 음모책동의 결과이다. 해외에서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고 그들에 대한 변호인접근마저 완전히 차단했던 퍼뢰패당이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최순실을 변호인들까지 붙여 돌봐주고있다. 변호할 꼬물만 한 가치도 없는 패륜악녀인 최순실에게 변호인이 붙었이나 붙어다니는 이자체가 남조선이 얼마나 무법천지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박근혜역도의 어리석은 잔꾀는 통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그것을 용납치 않는다.

퍼뢰역도가 최재경을 내세워 이번 사건을 얼렁뚱땅 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자멸을 더욱 재촉하게 될것이다.

라 설 하

로씨야전문가 박근혜역도가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

로씨야의 한 대학교수가 최근 신문 《꼼메르싼뜨》와의 회견에서 박근혜역도가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조선사회에서 현재 《최순실게이트》가 최대론쟁점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박근혜라고 하면서 그가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하고 조사를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박근혜가 보잘것없는 무당의 에언에 의지하여 그동안 많은 대외정책들을 단독으로 처리해왔으며 북조선에 대한 비난선전을 적극 벌렸다고 비난하였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기전에도 박근혜가 추진한 많은 결정들은 리해하기 힘들었으며 박근혜는 전문가들과의 론의없이 면사포에 가리운채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교수는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남조선의 《세누리당》과 박근혜가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스로 물러나야 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불의한《정권》의 편에 서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남조선교원, 공무원 4만 2 230여명이 시국선언

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전국공무원로동조합이 성원 4만 2 239명의 이름으로 4일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시국선언에서 권력의 폭력과 횡포, 전대미문의 국정롱락사태를 보며 더이상 침묵할수 없어 투쟁의 길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권》이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고 자본의 끝모를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교원과 공무원들을 바퀴처럼 부려먹고있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불의한 《정권》의 편에 서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단체들은 《정권》의 배후에 막후실세가 있고 이들에 의해 당국의 주요정보가 독점, 류통되며 국정이 좌우된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국정롱락이자 국정문란이라고 규탄하였다.

《정권》이 기업의 부당한 축적자금이 늘어만 가고 빈부격차로 민중의 삶이 한계에 이르고 있지만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도 경제파탄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전가하고있다고 단체들은 항의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쟁교육을 강화하고 돈 장난질로 지방자치단체들을 길들이기에 피눈이 되다 못해 급기야 교과서외곡으로 교육을 완전히 권력의 시종으로 전락시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사회가 총체적위기에 빠진 오늘 교원, 공무원들이 갈 길은 권력의 횡포를 저지시키고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내는것이라고 단체들은 지적하였다.

단체들은 민중에게 의식이 살아있는 한 《정권》의 음험한 기도는 결코 실현될수 없으며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리유는 충분하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퇴진과 현 《정권》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기를 모으는 풍자소설 출현

보도에 의하면 10월 27일 남조선의 연세대학교인터네트홈페지에 국정롱락사건의 주모자들인 박근혜와 최순실을 풍자한 소설 《공주전》이 실려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풍자소설 《공주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옛날 밝씨성을 가진 공주가 살았는데 닭과 비슷한 지력을 가졌다고 한다.

그 녀자는 거리에서 흔히 파는 고기떡을 먹는 방법을 몰라 먹지 못했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백성들이 악수를 청하면 몰리서서 손을 뒤로 빼군 하였다.

공주가 처신을 잘못할 때면 공주를 숭배하는자들이 《공주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였고 아버지는 독재에 여념이 없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라고 변호하군 하였다.

공주가 스무살이 되면 해에 기회를 엿보던 무당 최씨가 그를 만나 《돌아가신 중전마마》의 령혼을 불여주는 미천한 재주를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승낙한다는 공주의 말을 번역기를 돌린 후에야 가까스로 리해한 무당 최씨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공주의 모친의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등 각종 재주를 부리자 이에 홀딱 반한 공주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무당을 불러들였다.

무당은 기뻐하며 청에 응했고 곧 공주를 등에 업고 날로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때 주색에 빠져있던 아버지도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비명횡사하였다.

무당은 공주를 위로하며 힘을 합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공주가 이 말에 수긍하자 무당은 스스로 교주가 되여 열성을 아끼지 않았다.

무당에게는 시리라고 불리우는 딸(무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주나 간특함이 아비 못지 않았다.

어느날 무당이 무녀를 불러 공주는 머리가 나빠 네가 보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하고 눈을 감았다.

무녀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공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 서로 언니, 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된다.

공주는 무당을 추모하기 위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세누리》라고 명명하고 부친을 잃은 설음을 호소하여 세간사람들의 동정을 피한다.

《세누리》무리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의미에서 《개누리》라고 불리우며 공주를 수호하는데 여념이 없다.

어느날 머리가 나빠 연설문을 작성하는 법도 모르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무녀의 공약을 받아적기는 하였으나 어떻게 할지 몰라 이리저리 뒤여다닌다.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는 힐난이 쏟아지자 공주는 《내가 말한적이 없다.》고 단언하여 모든것이 무녀가 말한것이였다는 진실을 온연중에 인정한다.

보다 못해 공주를 따르는 《개누리》무리중 왕초로 불리우는자가 학생들에게 《고생도 좀 해보고 빚도 있어봐야 한다.》고 하였고 교육을 받아보던 한 판리는 민중을 포유류인 개와 돼지에 빗대여 민중이 닭보다 지적으로 월등히 앞섰다는것을 표현하려 하였으나 소통에 실패한다.

풍자소설의 마감무분에서 필자는 세상사람들이 공주와 최씨일가의 롱간에 대해 알고 경악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전하고싶어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박근혜와 그를 조종해온 최태민과 그의 딸년인 최순실을 풍자한 소설은 출현하자마자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글을 읽은 사람들은 고전문학으로서는 너무도 신통하다고 하면서 매고소해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붕괴는 력사의 숙명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백서

오늘날 미국은 력사상 최악의 위기속에 붕괴의 길로 내닫고있다.

근 8년전 세계적범위에서 쇠퇴해가는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마흔네번째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고앉은 오바마도 락향길에 오를 시각이 왔다.

력사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국에 《대변혁》을 안아올것이라던 오바마정권은 도리여 《완전한 정권》이라는 불명예와 《미국의 붕괴》라는 최악의 집권유산을 남기고 시대의 기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허울만 남은 《초대국》, 붕괴되는 《딸라제국》, 정신문화적타락의 왕국이라는 오명들과 함께 세계최대의 인권범죄국이라는 딱지를 제국에 붙여놓고 미국을 멸망직전 로마제국의 상태로 만들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온 오바마정권의 전면패배와 그것이 몰아온 미국의 붕괴상을 폭로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 *

백악관에 들어앉은 오바마는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법률,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수단들을 총동원한다는 이른바 《스마트실력외교》구상이라는것을 자기의 대외전략실현방도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대변영》과 《국민생활향상》의 허울을 씌운 갖가지 물발린 대내정책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지도력회복》은 고사하고 력사에 없는 경제적대난과 정치군사적도전들에 부딪쳐 미국의 전면적붕괴라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오바마집권기간 미국은 사상최악의 정치군사적렬세에 처하였다.

오바마정권이 세계제패전략을 위해 내놓은 각종 대외전략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된서리를 맞고 가뜩이나 미국에 위협적이던 세계전략구도를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오바마가 집권초기에 내놓고 노벨상까지 타먹게 한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은 미국의 핵독점야망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임으로써 세계의 규탄배격속에 력사의 시궁창속에 처박히였다.

세계의 다극화, 자주화의 흐름은 국제적, 지역적규모에서 새롭게 기세를 일으키며 악의 제국을 시대밖으로 밀어내고있다.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전평화애호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하여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기 위한 나라와 지역들의 단합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미국은 도처에서 배격당하였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제17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자주권과 평등한정, 독립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군사연습이나 무력사용 및 위협을 유엔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침략행위로 규탄배격하는 최종문건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전쟁정책을 공격하였다.

유엔총회 제71차회의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 상회의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일방적인 대조선제재를 배격하고 즉시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어 적대세력의 위통수를 호되게 후려갈겼다.

지난 시기 싱원국들사이의 경제협조에 선차적관심을 돌려오던 상해협조기구가 미국주도의 나토까지 위협하며 군사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고 그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입구화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의 안전보장과 평등한정, 자주권수호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집단안전조약기구가 신속전개집단무력의 항시적인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등 강력한 군사적움직임으로 미국의 패권책동에 대항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그 시작부터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일명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이라고 떵떵된 이 전략은 지역에서 미국의 확고한 군사적우세와 패권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지배야망실현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그 전략실현에서 최대의 장애물로 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무도한것이였다.

우리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굴복할 때까지 제재압박을 가하면서 인내성있게 기다린다는 이른바 《전략적인내》의 간판밑에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도발과 군사적공갈, 경제제재와 사상문화적공세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모든 방면에 걸쳐 달려들었다.

그러나 악의 제국을 끝장내기 위한 선군조선의 초강경대응전에 의해 오늘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총파산되고 아시아지배전략은 거덜나게 되었다.

력대 정권들을 철쇠 통가하는 오바마정권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우리 공화국을 핵무력강화에로 부단히 떠밀어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칭되는 수소탄까지 보유하게 만들었다.

상대를 오판한 오바마의 대조선정책은 결국 우리의 전략적지위만을 더욱 강화해주고 지역의 전략적구도를 바꾸어놓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그에 대해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군사적실체, 미국이 주도하는 새 세기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실토하였다.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을 이끄는 중심인물중의 하나이던 스테인버그 전 미국무성 부장관도 조선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조선을 압살할수 있는 《방법이나 묘수》는 더이상 없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은 주변대국들의 즉시적인 정치군사적대응도 불러일으켰다.

자기의 전략핵무력의 45%, 륙군의 21%, 공군의 42%, 해군의 52%, 항공우주방어군의 62%를 현대적무장장비와 군사기술로 갱신한 로씨야는 2014년 5월 20일 중국과 함께 정치, 군사 등 각 방면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항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강력한 군사적조치들을 취하였다.

올해 7월초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결정을 계기로 주변국들의 대항조치는 보다 강도높게 취해졌다.

로씨야와 중국은 미국의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문을 유엔에 제출하는 한편 지난 7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동북아시아안전에 관한 제4차 로중대화를 진행하고 미국의 책동에 대처하여 두 나라사이의 협조강화를 약속하였다.

로씨야는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울라지미르 모노마흐》호를 태평양함대에 배속시키고 남부꾸릴렬도에서 군사기지건설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있다.

한편 유엔무대에서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2000년 로마사이에 체결된 파잉무기금물루도니옴관리 및 처리와 관련한 협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만장에 선언하였다.

중국도 오바마행정부의 핵독점전략, 침략적인 아시아전략에 경계심을 품고 전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오바마정책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있다.

오바마정권의 대중동정책파탄도 미국의 비참한 처지를 더해주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 8년세월이 되여오도록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뽑지 못하고 많은 병력과 전쟁장비들을 잃으면서 전전긍긍하고있다.

《이슬람교국가》소탕의 간판밑에 수리아의 합법적정부를 전복하려던 미국의 기만적정책은 만천하에 드러나 국제적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수리아문제해결에 나선 로씨야와의 대결에서 참패만을 당하고있다.

그에 대해 인디아신문은 로씨야가 수리아에서 미국이 5년동안에 할수 없었던것을 최근 5개월동안에 해냈다고 하면서 수리아에서도 미국은 로씨야에 밀리고있다고 조소하였다.

얼마전 이란은 핵합의리행과 관련하여 자기 나라가 찾은 교훈은 미국이야말로 절대로 신뢰할수 없는 나라, 이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항면정책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오바마행정부는 얼마전 자기의 동맹국이며 중동제패의 전략적거점의 하나인 사우디 아라비아를 겨냥한 《테로지원국에 맞서는 정의법》이라는것을 채택함으로써 이 나라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전체 아랍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파키스탄수상의 특사는 대서양리사회에서 한 연설에서 오바마행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사실상 미국은 더이상 초대국이 아니며 쇠퇴몰락하는 나라라고 야유하였다.

미국의 파렴치한 패권정책은 이렇듯 친미적이였던 나라들마저 저들에게서 하나들 떨어져나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럽동맹이 1990년대부터 나토밖에서 추진해오던 독자적무력창설시도는 지금껏 미국의 대유럽정책을 대변해온 영국의 동맹탈퇴로 탄력을 얻게 되였으며 유럽땅에서 갈놔라 배놔라 하던 미국의 군사적지배권은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파산말기단계에 이르렀다.

나토성원국인 튀르끼예가 로씨야극경집인 지난 6월 12일 세상사람들의 예상을 뒤집고 로씨야와의 관계개선에로 방향전환함으로써 흑해주변나라들을 대로씨야군사적포위환형성에 써먹으려던 미국의 계획에 통구멍을 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내정간섭책동에 견결히 맞서나가는 아프리카나라들의 공동투쟁에 의해 미국의 지배책동은 아프리카땅에서도 여지없이 정면격파당하고있다.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악랄한 정치적압력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수단대통령에게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그에게 아프리카존엄상을 수여할것을 결정하였다.

지난 5월 12일 우간다대통령으로 재선된 무쎄베니가 자기의 취임식에서 수단대통령을 환영하고 미국의 주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데 바빠난 미국대표가 행사장에서 황급히 탈아빼 희비극적인 사건은 장차 아프리카땅에서도 쫓겨나고야말 미국의 신세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지난 1월말 아프리카나라들이 미국의 패권적도구노릇을 하고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집단탈퇴할것을 합의하고 여러 나라들이 그에 착수함으로써 아프리카지역에 뻗친 미국의 검은 마수도 몽청 잘려져나갈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자기의 《고요한 뒤동산》이라고 부르며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해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미국은 세차게 노도치는 반미자주화의 격류에 부딪쳐 밀려나고있다.

2011년 12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미국과 카나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나라들을 망라한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국가공동체(쎌락고)를 창설하고 자주화되고 번영하는 새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올해 1월 에꽈도르에서 진행된 제4차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국가공동체수뇌자회의에서도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전횡에 맞서나갈데 대한 주장들이 힘차게 울려나와 오바마정권을 전률케 하였다.

꾸바는 최근 미국이 꾸바와의 관계개선에 대해 운운하지만 반꾸바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오바마정책은 《딸라제국》을 걷잡을수 없는 붕괴에로 몰아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경제회복》과 《에산적자억제》를 력설하였지만 경제의 구조적모순과 불합리성, 파도친 군사비지출로 하여 미국은 더욱 심각한 재정위기, 경제위기속에 허덕이고있다.

오바마는 집권기간 력대 미국대통령들이 수백년 통치기간에 《마련》한 약 10조 6, 300억US$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채무액을 8년도 안되는 사이에 그 2배에 가까운 19조 5, 000억US$이상으로 불구어놓았다.

미국신문 《워싱톤 이그재미너》는 그의 임기가 끝날무렵이면 국가채무가 20조US$에 달할것이라고 예정하였다.

부쉬행정부의 마감시기인 2008회계년도에 4, 380억US$였던 련방예산적자는 오바마집권시기인 2013회계년도에 2, 420억US$나 더 늘어났으며 지난 1월 19일 미국회예산국이 극히 줄여서 추산한 2016회계년도 예산적자액수만도 5, 440억US$에 달한다.

극심한 재정위기로 인한 딸라가치의 하락은 미국경제를 파멸의 진펄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있다.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계와 경제적침략에 대처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도전은 《딸라제국》의 몰락을 촉진시키고있다.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딸라중심의 현 통화체도를 등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금융지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에 맞서 민족화폐의 사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미국의 딸라를 밀어내기 위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의 공동노력이 적극화되고있는 가운데 2014년 5월 21일 로씨야대외무역은행과 중국은행들이 민족화폐에 의한 결제를 정식 시작하였다.

이란도 로씨야, 인디아와의 원유거래에서 딸라를 배제하는 어려진의 대규모협정들을 체결함으로써 미국딸라의 지위에 타격을 가하였다.

아프리카대륙의 서부지역 5개 나라가 서부아프리카통화지역창설을 위한 공동화폐도입을 결정하고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성원국들이 2018년까지 단일화폐를 내놓을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0년부터 공동화폐 쑤끄레를 무역결제화폐로 정식 사용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전망적으로 그것을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도입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유럽기업들도 딸라배척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지난해 7월 다무적협조기구인 브릭스는 자기의 첫 금융기구들을 정식 창설함으로써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체계에 정면도전하였다.

기구설립에 앞서 브릭스성원국들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출현을 선포하였다. 》, 《정치적변화를 포함하여 전지구적경제변화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미국을 대신할수 있는 새로운 세계중심력이 생겨났다. 》고 그 의의를 크게 강조하였다.

여론들은 브릭스개발은행이 국제통화기금과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까지 대신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의 경제적침략책동이 도처에서 격파당하였다.

얼마전 유럽동맹은 오바마행정부가 대외정책상 최고《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대》창설광고까지 내걸고 총력을 기울여온 3년간의 《대서양량안무역 및 투자동반자관계협정》(TTIP)협상과 관련하여 《유럽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할수 없다. 》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으로 만들어놓았다.

오바마집권기간 미국은 정신도덕적파멸의 나락에 더 깊숙이 빠져들고 세계최대의 반인권범죄국으로 전락되였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는 력사상 최악에 이르렀다.

경제위기에서의 출로를 비인간적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데서 찾고있는 오바마행정부와 독점재벌들에 의해 온갖 더러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이 극력 조장되고있다.

미국의 뉴스웨브싸이트 《트루스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는 400명의 억만장자들이 일반주민 1억 5, 000만명의 재산을 합친것만 한 자산을 소유하고 온갖 변태적인 생활을 추구하고있다.

한쪽에서 억만장자들과 마약범죄자, 변태성욕자들이 다락에 빠져 질탕치고있을 때 수백만명의 실업자들과 수천만명의 빈궁자들은 생존경쟁마당과 류랑의 길거리들에서 인간으로 태어난것을 끝없이 저주하며 피눈물을 뿌리고있다.

오바마행정부의 반동적인 교육정책하에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의 청년들이 엄청난 학비때문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있으며 해마다 고등학교 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난으로 중퇴하고있다.

근로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오바마정권의 책동으로 사회전반에 약육강식, 황금만능주의, 인간증오와 같은 온갖 패륜패덕이 판을 치고 각종 흉악범죄들이 끊임없이 터지고있다.

오바마집권후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는 그전시기에 비해 14배로 급증하여 해마다 3만여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고있으며 매일 6만 7, 000명이상의 녀성들이 성폭행에 시달리고있다.

집권전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제각기 있는것이 아니라 순수한 미국만이 있을뿐》이라는 연설로 일약 반인종주의《투사》, 미국사회단합을 주장하는 《애국자》로 등장했던 오바마가 집권후 한것이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검둥이》로 모욕하고 무고한 흑인소년을 사살한 백인범죄자에게 내린 배심원단의 무죄선언을 존중하라고 흑인들을 강압한것이였다.

지난해 1월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이상이 피부색에 따라 사람들이 차별시되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흑인인 오바마가 취임한 이후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개탄하였다.

오바마집권기간 미국에서는 재산의 유무, 피부색, 지식정도, 거주년한 등 수십가지나 되는 선거참가제한조항들을 작성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하였으며 선거참가자들마저 회유, 매수하여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투표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는 무제한한 액수의 뢰물이 대통령후보지명이나 대통령당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정치체제는 이미 중요한 정치후원자들에게 대가를 보상해주는 도구로 전락되였다. 》고 개탄하였다.

오바마집권시기에 들어와 더욱 로골화된 정보정치, 공포정치로 하여 국내의 진보운동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반인민적 사상조류와 세력의 범람으로 인민들의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 생존권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그에 대한 항거와 분노의 폭발로 2011년 9월 뉴욕의 월가에서 터져오른 근로자들의 대중적투쟁은 미국사회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 세계적범위에서 반제, 반자본주의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에서는 당국의 무분별한 전쟁정책과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전국적범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 미국사회의 붕괴를 촉진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세계도처에서 감행한 반인륜범죄들은 미국을 전인류의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유엔이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매해 3, 800만명안팎이였던 전세계의 피난민수가 미국의 《아랍의 봄》이 시작된 2011년에는 4, 000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2016년 6월에는 6, 530만명을 기록하였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수호》, 《반테로전》, 《인권옹호》의 기만적간판밑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극악한 인간대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꾼두즈주에 있는 국제의료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을 목표로 한시간이상이나 맹폭격을 가하여 수많은 환자들과 의사, 간호원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올해 9월 17일에도 미국주도의 전투기들은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성원들에 대한 포위작전을 벌리고있던 수리아정부군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만을 퍼부어 60여명을 죽이고 약 100명을 부상입히는 살륙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영국의 한 신문은 무인기공격계획을 실행할 때 전화추적이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공격목표를 확정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공습에서 살해된 사람들의 90%가 죄없는 민간인들이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생물전쟁을 목적으로 여러해전에 서아프리카에 생물무기연구소들을 설치하고 에볼라비루스의 원종을 만들어냈으며 2014년 기네와 시에라레온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이 발병되기 몇주일전에 1억 4, 000만US$를 들여 그와 관련한 생체실험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80여곳에 도청시설들을 설치해놓고 일반주민으로부터 국가수반들에 이르기까지, 적대국가들로부터 동맹국들 지어는 유엔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상대로 전대미문의 불법행위를 감행하여왔다.

2012년 중엽 세계각국의 5만여개 콤퓨터망에서 정보자료를 절취해냈으며 그해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동안에만도 전세계적으로 1, 248억건의 전화내용을 도청하였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의 한 관리는 《어느 나라 대통령의 목소리든지 우리 특공대원들의 귀에 걸리지 않는것이란 거의나 없다. 그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전화나 미국방문기간 식당이나 호텔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도청되고있다. 》라고 뻐젓이 떠벌이였다.

오바마의 범죄적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오늘 사상최악의 정치, 군사, 경제적렬세와 문화도덕적파멸, 대내외적규탄과 고립에 직면하였으며 그러한 미국에는 앞날이 없다.

미국력사상 《가장 추잡한 대선토론》, 《가장 지저분한 공방전》으로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것도 모자라 이 시각에도 《배열전》을 이루고있는 대통령선거를 놓고보아도 미국에는 자국의 붕괴를 막을만 한 인물도 사상도 자그마한 정신도덕적밑천도 없다.

150여년전 미국의 써어빠진 선거제도를 신랄히 조소한 소설 《주지사선거경쟁》의 창작으로 유명한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이 살아있다면 오늘의 미국을 어떻게 그렸겠는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하기에 얼마전 미국의 AP통신은 미국이 력사적으로 제2의 분렬기에 접어들었다고 개탄하였으며 미국의 공동문제연구소는 자기의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미국의 시대는 이미 끝장났다고, 공화당 대통령후보든 민주당 대통령후보든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미국이 분렬되는것을 막을수 없다고 비난해나선데 대하여 까밝혔다.

오바마정권의 완패는 허장성세하던 미국의 붕괴를 예고하고있다.

* *

자주화는 시대와 력사의 흐름이다.

강권과 전횡, 침략과 간섭, 착취와 압박에 기초한 미국의 대내외정책은 력사의 이 흐름을 거역하고있기에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배격받고있으며 자국의 운명마저 붕괴에로 몰아가고있는것이다.

미국이 그처럼 자부하는 《성조기》는 오늘날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별의 기발》이 아니라 피를 게바른 승냥이의 낯짝으로 락인되여 인류의 발밑에서 여지없이 짓밟히고 불세례를 받고있다.

《강대한 미국》, 《강대한 미군》만을 그려내던 헐리우드는 머지않아 미국의 이 몰락상, 붕괴상을 그리지 않으면 안되게 될것이다.

력사는 대결과 전쟁에는 전도가 없으며 국민이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마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온갖 악의 근원인 미국은 반드시 매장되고야말것이다.

주체105(2016)년 11월 6일

평 양

오늘의 세계

날로 본격화되고 있는 우주개발경쟁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21세기에 들어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과학기술은 보다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사업에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우주개발을 경제발전의 중대한 문제로 간주하고 자립적인 우주기술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지난 8월 나이제리아에서 제16차 국가우주대화가 진행되였다.

대화개막식에서 연설한 이 나라 과학기술상은 우주기술은 국가수입의 주요원천인 원유를 대신할수 있는 유력한 요인으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우주기술에 의한 식량안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원격의료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주개발에 기초한 경제발전방향에 따라 정부는 2개의 통신위성을 발사할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 리용하는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이란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3개의 국산제위성을 쏴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나라 우주국은 올해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에 감시사명을 지닌 《샤리프사트》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이란년도에는 《나히드 1》과 《아미르 카비르》로 명명된 위성들이 발사될것이라고 한다. 한편 2025년까지 유인우주비행을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인디아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항법위성, 통신위성, 기상위성 등 각이한 용도의 위성들을 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얼마전 이 나라는 극궤도위성발사체 《PSLV-C35》를 발사하여 위성들을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고 한다.

이밖에도 폴스까가 자체로 개발한 위성운반로케트의 생산과 말연구를 위한 위성발사를 계획하는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우주개발계획들을 세우고 위성제작과 발사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여들고있다.

우주개발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호상협조도 긴밀해지고있다. 이미 아프리카의 9개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라지오망원경을 설치할데 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이 망원경이 설치되면 아프리카나라들의 우주과학발전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한다.

아랍추장국련방은 2017년 1월에 아부 다비에서 처음으로 세계우주대회를 개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대회는 아랍추장국련방을 비롯한 광범한 나라들에 협조와 교류를 확대시킬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정복하기 위한 경쟁열의는 더욱 고조되고있으며 이것은 현 시기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우주개발분야는 발전된 몇몇 나라들이 독점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구도는 날이 갈수록 깨여져나가고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여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다. 일부 특정한 나라들이 제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우주개발을 가로막는것이야말로 국제법들에 배치되는 불법비법의 행위이다.

앞으로 우주개발에 뛰여드는 나라들의 수는 더욱더 많아질것이다. 우주를 정복하려는 인류의 지향이 강렬해질수록 우주개발경쟁도 더 활발하게 벌어질것이다. 그로 하여 우주공간은 전인류의 생존과 경제,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마당으로 전변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악랄하게 감행되는 반이란소동

지난 10월 분쟁지역인 예멘의 린근해역에서 돌아치던 미해군구축함 《메이슨》호가 한주일사이에 무려 3차례나 미싸일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이 미싸일들이 예멘의 반정부세력이 차지하고있는 지역에서 발사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을 운운하던 끝에 순항미싸일들로 반정부세력의 레이다시설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단행하였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예멘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이 지역 반미세력의 분노의 표시로 보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미국이 사건의 책임을 이란에 전가시켜보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예멘정세에 정통하고있다는 일부 관리들을 내세워 이란이 최근 몇개월사이에 예멘의 반정부세력에 대한 무기밀매를 확대하여왔다느니, 반정부세력이 이란제미싸일들로 함선들을 공격하는 테로행위를 감행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비방중상을 일삼고있다.

지어 얼마전 미중앙군사령관이라는자는 이란이 미군함선에 대한 미싸일공격사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놀았을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이란과 예멘의 반정부세력이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멘의 반정부세력은 이슬람교시아파이다. 이 점을 리용하여 미국은 저들의 보도게를 내세워 이슬람교시아파국가인 이란이 반정부세력에 대한 지원을 암암리에 진행하고있다고 대대적인 비난선전공세를 벌려왔다.

사실 이번 미싸일공격사건은 다른 나라의 분쟁에 쓸데없이 코를 들이민 불청객이 당한 응당한 봉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신을 차릴 대신 오히려 이것을 한 주권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비렬한 여론전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국제무대에서 반미적인 이란을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국가로 오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저들의 대이란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해보자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지금 이란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키고있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함선공격사건에 대한 이란의 막후조종설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이것을 《비현실적이고 의혹을 자아내는 무근거한 허구》로 비난하였다. 한편 이란은 예멘에서 리용되는 미싸일들이 자기 나라에서 제작되였다는 미국의 비난에 대응하여 예멘분쟁에 각종 무장장비들을 들이밀어 수천명의 무고한 예멘주민들을 학살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저지른 미국은 남을 비난하기전에 자기의 죄악부터 들이켜보아야 한다고 단죄하였다.

잠재적적수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면서 자기의 패권주의정책강행의 구실을 마련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의 하나이다. 세계는 지난 시기 미국이 이라크의 있지도 않은 《대량살륙무기개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다가 끝내는 군사적침공을 감행하여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에 앞서 모략적인 여론전에 매달리는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미군함선에 대한 미싸일공격사건을 기화로 벌려놓고있는 미국의 반이란중상행위들이 그것을 또다시 실증해주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세계각지에서 반미적인 나라들과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을 헐뜯기 위한 비난전에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마련이며 미국의 권모술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불어대는 모략적인 선전나발들을 각성있게 대하고있다.

미국이 앞으로도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처신한다면 모략과 음모, 강권과 전횡을 체질화한 자기의 추악한 정체를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이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안철권

ㄱ-61179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